

대어급 IPO 출격 나선다… 공모주 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

DN솔루션즈, 내달 7일 청약 돌입
롯데글로벌로지스·달바, 수요예측
이지스 등 9곳 상장예비심사청구
美 관세정책에 기회·리스크 혼재
항공우주·방위 섹터 활기 가능성

덩치 큰 대어들이 냉·온탕을 오가는 기업공개(IPO)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1분기에만 국내 IPO 시장에서는 12억6550만달러의 뭉치돈이 공모주 시장에 흘러들었지만,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DN솔루션즈 등 ‘대어급 기업’의 상장이 이어지면서 공모주 시장 열기가 다시 고조될 것”이라면서도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종목마다 달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어들 개미들 투심 잡을까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DN솔루션즈는 5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기업공개(IPO)’ 이미지.

대상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 금액은 9119억원에서 1조2585억원 수준이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4조1039억원에서 최대 5조6634억원이다.

롯데글로벌로지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희망가는 1만1500~1만3500원 수준이다. 시가총액은 4789억~56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뷰티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달바글로벌 역시 수요예측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공모가 희망 범위는 5만4500~6만6300원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6578억~800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신약개발 기업 인투셀과 OLED 부품 제조업체 파인원이 5월 중 수요예측을 거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심사를 통과하거나 청구하는 기업 수도 늘고 있다. 이달 들어 대한조선, 한라케스트, 에스엔시스, 이지스, 빅텍스, 아로마티카, 비즈로넥스텍,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아이나비시스템즈 등 9개사가 신규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스팩(SPAC·기업 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수치로, 조선,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화장품, 탄소포집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르게 포진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4월 들어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청구 기업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청구 기업들의 업종이 다양하고 각기 다른 매력을 갖춘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선부른 기대는 낭패

올해 글로벌 IPO 시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가 잇따르며 기회와 리스크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신규 관세 정책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항공우주·방위 섹터는 각국의 국방 지출 확대에 따라 투자금이 몰리며 관련 IPO 시장이 활기를 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IPO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1분기에 상장한 기업들도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엇갈리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관세 이슈 등으로 주요국 증시가 흔들리며 연초의 고밸류에이션 기대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

박정익 EY한영 감사부문 마켓 본부장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IPO 이후 단기 매매 억제 및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격이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기업 가치 반영이 보다 정확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 전환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IPO 시장의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서학개미, 테슬라·엔비디아 2300억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예탁원, 지난주 주가 반등 ‘순매수세’
전문가 ‘운용비중 축소’ 전략은 유지

주가 반등에 힘입어 서학개미들이 다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동시에,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는 양면적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관세 정책과 불투명한 실적 전망 등 변수가 상존해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접근이 요구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4월 22일부터 28일까지)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각각 8862만달러, 7508만달러씩 총 2300억원(1억6370만달러) 정도 순매수했다. 주가 급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12.19%, 테슬라는 25.66%씩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 23일 부진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테슬라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상승했다. 테슬라의 1분기 매



ChatGPT로 생성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출액은 193억4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은 27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3.8%, 25.0%씩 하회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각각 9.2%, 40%씩 역성장한 수치다. 특히 차량 인도량이 33만7000대로 13% 감소했으며, 평균 판매가격도 전년 대비 9% 하락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테슬라를 사들이며 투자에 더욱 집중했다. 테슬라는 이번 발표를 통해 6월부터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며, 옵티머스 로봇은 올해 말부터 5년 안에 연간 10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구체적인 수치들

이 제시되면서도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주당순이익(EPS)이 연평균 2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83.4배에 달하고, 이를 반영한 주가수익성장비율(PEG)도 3.7배로 시장 및 비교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운용 비중 축소’ 전략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동차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비롯해 애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나스닥 대표 종목들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관세 정책 여파로 주요 기업들의 이익 가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나스닥1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시장 지배력이 높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익 가시성의 하락은 불가피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기업들은 배당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1분기 DLS 미상환잔액 11.8% ↑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DLS) 미상환 잔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DLS 미상환 잔액은 34조2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DLS는 금리나 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일까지 특정 범위 안에서 움

직이면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일부 알려졌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자산 가격이 급변해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1분기 DLS 발행금액은 5조8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발행 종목 수도 578종목으로 같은 기간

12.2% 늘었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 발행이 전체의 28.7%(1조6941억원), 사모 발행이 71.3%(4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공모 발행은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반면, 사모 발행은 44.9% 급증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금리연계 DLS 발행액이 전체의 78.2%(4조6108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용연계 DLS는 11.4%(6692억원)를 기록했다. 이 두 유형이 전체 발행금액의 89.6%를 차지했다.

/원관희 기자

‘보닥’ 플랫폼으로 ‘더 나은 보험’ 제안

코스닥 기업탐방

아이지넷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아이지넷. 얼핏 보면 어느 IT 기업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특별하다. 보험 상품 약관과 가입 정보, 고객의 건강 상태와 생애 주기 등 ‘사람과 삶’을 기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더 나은 보험’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아이지넷은 단순한 보험 비교 플랫폼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의 미래를 다시 쓰겠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지향점을 지닌 기업이다.

데이터 기반 보험 미래 다시 쓸 것
보험 진단·추천 모바일 앱 ‘보닥’
누적중개액 5000억 국내 1위 기록
국내 넘어 베트남 등 동남아 공략

아이지넷은 ‘인슈어테크’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2014년, 보험 산업의 비효율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데이터로 풀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현재 아이지넷은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았고, 최근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하며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보닥(Bodo c)’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보험 진단·추천 앱으로, 누적 다운로드 200만건, 누적 중개액 50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1위 인슈어테크 앱으로 성장했다. 사용자는 보닥을 통해 자신의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보장 과부족을 진단받을 수 있다. 필요한 상품을 AI가 추천해주는 과정도 경험할 수 있다.

아이지넷이 보유한 보험 관련 데이터는 업계 최대 수준이다. 국내 보험사 전 상품

과 약관 30만건, 누적 상담 데이터 37만건, 계약 데이터 4만5000건, 마이데이터 연동 29만건 등 방대한 정보를 학습한 AI 엔진은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보장 설계를 도출한다.

회사는 B2C 플랫폼뿐 아니라, B2B SaaS 솔루션도 적극적으로 제공 중이다. 보험사·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에 AI 보험 진단·추천 엔진을 공급하며, 자체 개발한 ‘플래너웹’, ‘마이리얼플랜’, ‘클락패스’ 등 보험 분석 및 영업 지원 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클락패스’는 고객의 건강 및 유전자 정보를 보험 진단에 반영해 정확도를 끌어올린 B2B2C 맞춤형 솔루션이다. 기업 고객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기술력과 확장성 면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아이지넷은 국내를 넘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인슈어테크 기업 ‘메디치(Medic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건강 관리, 보험금 청구, 보상 상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보험을 넘어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험 분석이 단순한 계약 성사의 도구를 넘어, 고객의 삶 전반을 케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아이지넷 관계자는 “보험 산업은 여전히 아날로그 중심이고, 고객은 복잡한 약관 앞에서 불안해한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간극을 줄이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아이지넷은 데이터와 기술을 무기로 보험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기업이다. ‘보험의 재발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아이지넷의 도전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대환 기자 kdh@